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김수연*

— <차 례> —

1.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 : 신화성
2. 득선(得仙) 여행 : 수련과 선업(善業)
3. 환상의 세계, 소망적 현실 : 대안공간
4. <숙향전>의 지향 : 교감과 치유
5. 남은 이야기 : 축제와 승선(昇仙)

<국문초록>

<숙향전>은 원초적 신화성을 담지한 환상소설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숙향은 반복되는 고난을 거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다. 고난의 여정은 초월적 존재와 자연적 존재의 조력을 받아 신인적 능력을 획득하는 득선의 과정이다. 숙향의 득선과정은 요지연을 전환점으로 하여 돌아오는 여행구조로 이루어진다. 요지연까지의 길은 속세의 나약한 존재인 숙향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선도를 이루는 수련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 숙향은 신들의 모임인 요지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본연, 즉 전생에 천상 선녀였음을 확인한다. 요지연에서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길은 지상선의 성격을 지닌 숙향이 선업(善業)을 닦는 과정이다. 선업은 보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한 보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업을 통해 숙향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유력을 획득한다.

숙향의 득선 과정이 전개되는 공간은 세속적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이어지는 곳이다. 그녀가 득선 여행에서 만난 대상은 사슴과 청조와 같은 자연적 존재와 신

* 본 논문은 2010년 5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고전연구학회 70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조현우 선생님을 비롯,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박일용, 최재남, 조광국, 조혜란 제위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사를 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인 등 초월적 존재들이다. 현실 공간에서 자연적 존재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초월적 존재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숙향이 그들과 만나는 공간은 일종의 환상 세계이다. 그런데 환상 세계는 현실에서 결핍된 것을 반영한다. 나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낸 세계는 각박하고 폭력적인 현실에 대한 대안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대안공간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보상 내지 대안으로 상상해낸 세계이다. 동시에 현실과 분리된 천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영역에 존재하면서 초월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세계이다.

숙향은 득선 여행을 통해 지상선이 된 후 더욱 선업을 닦아 그 신인성을 고양하였다. 서왕모로 대표되는 여신은 대개 생명을 붙여넣거나 죽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다. 숙향 또한 득선과정에서의 수련과 선업으로 여신의 치유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한편 <숙향전>이 이선으로 하여금 마고선녀의 시험에 들어 숙향의 득선 여행 경로를 반복하여 겪게 한 것은 숙향의 치유력을 배우자인 이선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황태후가 사경을 헤맬 때 이선이 구약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이선의 여행은 일견 신들의 속임수와 장난에 시련을 겪는 듯 보이나 실상은 신들이 조력자가 되어주고 더불어 즐기는 축제이다. 천상에 올라 신들과 축제를 즐기는 것은 이선이 천상신의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수련과 선업을 거친 이선과 숙향이 황태후의 죽음을 치유한 이후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신화가 지니는 치유적 상상력이 서사무가로 전승되는 경우는 신화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죽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여성이 직접 발휘한다. 그러나 소설은 자신의 모태가 된 사회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숙향이 황태후의 죽음을 구원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선을 보좌하는 데 머문 것은 <숙향전> 형성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숙향전>, 신화성, 치유적 상상력, 대안공간

1.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 : 신화성

환상적 세계를 창조하는 힘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조력이며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환상이 동반하는 낯선 느낌이 인물이나 독자에게 ‘머뭇거림’을 느끼게 하더라도,¹⁾ 그것이 성공적으로 창조해 낸 2차 세계에 독자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은 환상적 세계의 내적 리얼리티가 주는 믿음 때문이다.²⁾ 그 믿음은 환상적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꿈꾸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때로는 기존 현실에 대한 진복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다.³⁾ 기존 고전문학의 환상성 논의는 꾸준하였다.⁴⁾ 그러나 대개의 환상성 담론이 소설적 환상의 근원과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서사기법이나 화소차원의 논의에서 반복되거나, 환상성 자체의 성격 규정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⁵⁾ 이는 서양의 환상성 담론을 서둘러 적용했던 초기 연구와 인문학의 위기를 문화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손쉽게 빠르게 극복해 보려는 오늘날의 연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적 환상은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상상력은 근대 이후 새롭게 외부에서 진입되어 온 것이 아니다. 상상력은 인류 보편의 창

1) 토도로프, 이기우 역,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1996.

2) 2차 세계는 톨킨의 용어이다. 황병하, 『환상문학과 한국문학』, 『메타비평을 위하여』, 민음사, 1997, 373쪽.

3)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4)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식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강상순, 『고소설에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5) 정환국,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학사연구』37, 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조적 동력이다. 동양의 경우 상상력의 기원을 하나라 우임금 때 편찬되었다는 신화지리서 『산해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해경』은 소위 중원이 라고 하는 중국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燕)·제(齊)·초(楚)를 포괄하는 고대 동이문화권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근래의 주장이다.⁶⁾ 동아시아 문화권의 최초 신화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이문화권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발견되는 환상성의 근원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고소설은 신성소설이든 세속소설이든⁷⁾ 대개가 환상적 속성을 지닌다. 고대문학에 나타나는 환상성의 근원에 대해 대개는 도교와 관련하여 논의한다.⁸⁾ 도교가 지니는 환상성은 도교 이전의 신선가와 신선설화에 빛진 바 많고 이들 신선설화는 궁극으로는 신화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의미로 본다면 문학적 환상성의 근원을 신화적 상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학적 환상성의 근원으로서의 신화적 상상력은 신화서, 신선설화 그리고 이후 도교로 이어진다. 도교는 당대(唐代)에 가장 크게 번성했다가 이후 불교의 유입과 유교의 발흥으로 사상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줄어들지 않고 민간에 유입되어 기층 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무가 등 민간신앙에서 도교적 사유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설 또한 민간 기층 문화를 대표하는 장르로 그 바탕에는 신화에서 기원한 도교적 사유가 깔려

6) 『산해경』 편찬시기에 대한 논의는 하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분분하나 작자 및 성립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내 학자들도 그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23~25면.

7) 이상택, 「고전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한국고전소설연구』, 1983, 75~76면.

8) 서유경, 「〈최고운전〉의 도교적 성격과 그 문화적 의미」, 『선칭어문』, 2003;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010; 최윤희, 「〈손천사영이록〉의 도교적 면모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2010.

있다.⁹⁾ 이렇듯 신화-신선설화-도교로 이어지며 민간문화의 기반이 되는 문학적 상상력의 총체를 본고에서는 ‘신화성’이라고 이른다.¹⁰⁾ 이는 ‘도교적 사유’라고 한정할 경우, 자칫 당대(唐代) 이후 관방화된 도교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신화서에서 출발한 상상력은 신선설화나 신선전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다. 이들은 주로 신인들의 행적이나 일대기가 중심이 되는 득선설화와 그들이 사는 공간이 중심이 되는 선경설화로 나뉜다.¹²⁾ 이는 신화서와 신선설화가 득선의 과정과 선경으로 표현되는 공간 이미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득선의 과정과 공간 이미지의 결합은 ‘주인공의 배경-득선의 과정-능력의 발휘-최후의 귀속’¹³⁾으로 이루어지는 신선설화의 서사구조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주인공의 배경’에서는 주인공이 현실과 분리되는 계기 즉 질병이나 유기(遺棄)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최후의 귀속은 신화적 설화가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득선(천상선) 즉 승천 등으로 마무리 된다. 이야기의 중심부인 ‘득선의 과정-능력의 발휘’에서는 수련과 선업을 통한 득선(지상선)과 그 과정에서 획득한 치유력의 발휘가 중심 사건이다. 더불어 이 부분에서는 공간 이미지도 극대화 된다. 주목할 것은 득선의 여정과 능력 발휘의 공간이 동일 공간이

9)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의 고전소설을 ‘신성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10) 본고의 ‘신화성’은 신화서를 근원으로 한 신선설화와 도교적 사유를 포괄하므로, 이후 신화와 신선설화 및 도교적 사유를 ‘신화성’의 범주 내에서 혼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1) 관방 종교화된 도교는 내단과 외단의 수련방식과 개인적 불로장생을 중시하는 것으로 경도되는데, 도교적 상상력으로 한정할 경우 자칫 도교가 뿌리 두고 있는 신화적 상상력의 범주를 제한할 수 있다.

12) 정재서, 앞의 책, 142~151면. 신화서 및 신선설화의 특징에 대한 부분은 이 책에 크게 맞히고 있다.

13) 정재서, 앞의 책, 144~147면.

며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가 이어지는 곳에 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신선설화 가운데 선정설화에서 주목하는 ‘낙원’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신화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신선설화의 경우 주인공이 현실을 떠나 이루어지는 ‘여행’의 과정 그 자체를 수련의 방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¹⁴⁾ 여행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의 득선을 도와주는 스승이 되고 그들이 부여하는 시련 또한 득선을 위한 수련이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을 배우며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난다. 성실한 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득선할 수 없다는 것이 고대 신선설화가 전제하고 있는 득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수련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득선을 한 주인공은 획득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 발휘는 수련을 위해 지났던 여정을 거슬러 돌아오며 이루어진다. 주인공의 능력 발휘란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후대 도교에서 말하는 ‘양생’이 개인적 차원으로 협소화된 개념이라면 신화세계에서의 양생은 ‘모든 생명을 기르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선인은 단순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와 봉사의 과정을 통해 완벽한 인성을 획득한 ‘전인(全人)’이며 그 능력을 (동물을 포함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진정한 ‘영웅’이다. 이 때문에 동양 신선설화의 구조가 서양 학자가 주장한 ‘출발-입문-회귀’라는 영웅 신화의 과정과¹⁵⁾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것이다.

14) 후대 협의의 도교설화에서는 내단법을 중시하여 특정한 공간에 머물면서 스승에게 사역이나 시험을 당하고 단약을 복용하여 득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공간은 시험의 장소로서, 득선이 이루어지거나 실패한 이후에는 사라져버린다. 공간이 이미지가 축소되면서 설화의 성격도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이기적 차원에 머물게 된다.

15)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숙향전>의 구조가 서사무가와 친연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가치에 반하고, 민중에 기반하는 신화적 영웅은 중앙집권화가 공고화되는 중세기를 거치면서 문학의 주류인 문

필자는 신화 및 신선설화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환상성의 근원과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숙향전>을 텍스트로 삼았다.¹⁶⁾ 이는 <숙향전>이 고소설 가운데 환상성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럼에도 환상성의 기원과 본질에 초점을 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숙향전>이 신화적 상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서사화하고 있는지가 본고의 주된 논의가 될 것이다. 필자는 <숙향전>이 신화적 상상력을 서사화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구조의 핵심을 ‘수련과 선업의 득선 여행’으로 보았다. ‘득선 여행’의 전반부는 주인공 숙향이 평범한 개인에서 능력을 지닌 ‘전인’으로 변모하는 수련의 과정이다. 후반부는 능력을 획득한 숙향이 그 능력을 발휘하며 선업을 쌓는 과정이다. 능력발휘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신화적 공간의 성격이 구체화된다. 그것은 ‘선경과 낙원’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상의 낙원이다. 상상이 만들어 낸 세계는 대개 현실에 대한 반란이다. 이는 현실의 결핍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향전>의 환상세계는 현실에 대한 대안세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선이 선계를 여행하고 신선들과 교류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언이 아니라 비주류인 민간서사문학 속으로 숨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숙향전>과 서사무가가 지니는 공통성에 대해서도 그 기원을 신화적 상상력에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 16) 기존의 이본연구가 비교적 선본이라 평가한 이대본을 인용 텍스트로 삼는다. 차충환, 앞의 책, 33~139쪽.
- 17)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 18)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본고가 신화시대에서 한참이나 멀어져버린 17~18세기에 여전히 신화적 상상력이 서사창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대 사람들이 상상해 낸 서사공간을 통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현실의 모습을 읽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득선(得仙) 여행 : 수련과 선업(善業)

대개의 환상소설은 여행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환상소설의 상상력이 신화성에 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설화의 구조는 ‘주인공의 배경-득선의 과정-능력의 발휘-최후의 귀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탐색’을 핵심으로 하는 영웅신화의 구조와도 유사하다.¹⁹⁾ 여기에서 말하는 ‘탐색의 과정’이 바로 여행이다. 그렇기에 여행은 일종의 모험이 된다. 모험은 신기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만남이 기대되고 실현된다. 신화적 인물(영웅)이 여행에서 만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하는 동식물이나 사물,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 혹은 인간의 형상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신적 존재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적 이미지들이다. <숙향전> 또한 여행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숙향전>의 여행에는 김전과 숙향, 그리고 이선이 참여한다. 이들이 참여하는 여행 경로는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특정 시점과 공간에서 결합하였다 분기되기도 한다. 김전과 숙향, 그리고 이선이 여행의 주체를 번갈면서 접하게 되는 대상은 다양하다. 김전은 명산 대천→반하수→동정호(백운교)→집(처가)→산중(피난)→낙양(태수)→계

19) 그렇기에 신화적 인물은 자연스럽게 영웅성을 지닌다. <숙향전>을 여성영웅소설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양(태수)→양양(태수)→반야물가→양양→황성의 이동 경로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구위 먹힐 위기에 처한 거북'을 구해주시기도 하고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서는 그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한다.²⁰⁾ 딸 숙향이 5세 되던 해는 난리를 만나 산속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 시점에서 본격적 여행 주체로 숙향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판타지에서 모험의 주인공은 소년 소녀이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 중에 뜻밖의 사건으로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그 계기는 주로 부모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숙향의 모험도 마찬가지이다. 김전이 5세 된 숙향을 난리 중에 버린 것을 부친으로 표상되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폭력이나²¹⁾ 전쟁고아의 비참한 현실로도²²⁾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내적으로 볼 때 전쟁과 유기는 숙향의 모험을 위해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부모 부재를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아동 판타지와 친숙한 부모의 부재와 모험은 기실 신화성을 기반으로 한다. 주지하듯 신화적 설화의 서사구조가 '주인공의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내력을 소개하고 특선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 즉 질병이나 유기 등이 제시된다.²³⁾ 종래 숙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려 할 때, 서두의 김전 이야기는 작품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다소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김전이 거북이를 구해주는 것을 숙향의 내력과 선연(仙緣)을 암시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²⁴⁾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해 진다. 이렇듯 김전 이야기와

20) <숙향전>, 2~3쪽.

21) 최기숙, 앞의 논문.

22)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991, 71~84쪽.

23) 고소설 가운데 대표적 신선소설인 <남궁선생전>의 경우도, 서사의 시작이 남궁두가 나병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4) 김전이 혼인 전 신령한 거북을 구해주고 그 덕에 얻은 개안주는 김전에서 숙향 그리고 이선에게로 옮겨가며 숙향의 선연(배경)-고난(특선과정)-보은(능력발휘)과 긴밀

전쟁에서의 유기는 숙향이 득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산속에 버려진 숙향은 ‘산중→역마을(유곡역)→큰 마을→산 위 궁궐(명사계)→장승상택→표진 강→갈 숲(노전)→이화정’을 거쳐 ‘서왕모의 집’에 이른다. 숙향은 여행길에서 수많은 대상을 만난다. 그들은 도적, 잔나비, 황새, 까치, 후토부인, 사슴, 장승상, 사향, 거북(용녀), 향아의 시녀, 화덕진군, 마고할미, 청조, 서왕모 등이다. 이들은 대개 힘없는 민중이나 동물들, 아니면 신인적 존재들이다.²⁵⁾ 이들은 모두 숙향의 조력자이다. 유일한 악인인 사향도 숙향의 수련과정에 필요한 고난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자의 범주에 든다.²⁶⁾ 사향의 모함을 비롯 장승상 택에서의 10년 고공살이²⁷⁾와 경액과 선과의 복용은 신선가가 말하는 수련의 방식들이다. 신선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인간, 즉 불사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우선 정신수련과 육체수련을 거쳐야 한다. 정신수련의 방법으로는 인격수양을 위한 인내가 있고,²⁸⁾ 육체수련 방법에는 복약, 단약, 금액, 제지(諸芝) 등 선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약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가볍고 빠르게 걸을 수 있으며 온갖 병이 낮고 도로 젊어지기도 한다.²⁹⁾ 숙향이 사향의 모함을 겪어 내고 장승

한 관련을 지닌다. 또한 선산(仙山)을 지탱하는 신령한 거북을 대인(大人)이 잡아가는 이야기가 『열자』 『탕문湯問』에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거북이 선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상징임을 알 수 있다.

25) 장승상 부인도 적당한 선녀이다.

26) 선인의 득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스승은 주인공의 득선을 위해 연단의 비법도 전수하지만 극복해 내야 할 시련도 함께 제공한다.

27) 숙향 스스로 장승상 택에서의 삶을 고공살이로 표현하였다.

28) 『산해경』에 최초로 주석을 달기도 한 대표적 신선가 갈홍(葛洪)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충효화순인신(忠孝和順仁信)을 근본으로 삼아야지, 덕행을 닦지 않고 방술만 힘쓰면 결코 장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갈홍, 『포박자·내편』 권3, 『對俗』, “欲求仙者, 要當以忠孝和順仁信爲本, 若德行不修, 而但務方術, 皆不得長生也.”

29) 정재서, 앞의 책, 43~54면.

상 덕에서 10년의 고용살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정신수련에 해당하며 신령한 동물과 신인적 존재가 준 선과와 경약을 복용하여 몸이 가벼워지고 온갖 피로와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육체수련에 해당한다. 또 불길에 싸인 노전 300리를 무사히 건넌 것은 육체수련이자 동시에 선인의 대표적 능력인 불에 대한 통어력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다. 이때 화덕진군이 숙향으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조리 벗게 하는데, 이는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신선이 되는 시해선(尸解仙)처럼 존재의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화덕진군이나 벌거벗고 굶주린 숙향을 데려다 성숙한 여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마고선녀는 그 자체가 신화적 존재일 뿐 아니라 숙향을 득선하도록 인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³⁰⁾

숙향이 요지연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은 득선을 위한 수련과정이다. 숙향은 육체적 정신적 수련과정과 속세의 육체에서 벗어나는 존재 변화를 경험한 뒤 어린 아이에서 성숙한 여인이 된다. 숙향의 존재 변화는 그녀가 신인적 능력을 획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숙향은 고난이 끝난 지점에서 신선들의 모임인 요지연에 참석하여 전생이 천상의 선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고된 여정은 숙향이 본연의 신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요지연은 득선 여행의 궁극점이 아니다. 요지연까지의 수련과정에서 획득한 신인적 능력은 일종의 지상선으로서의 능력이다. 선인이 궁극의 목표인 천상선이 되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지연은 수련에서 선업의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된다.³¹⁾

30) 신선설화에서의 탐색의 과정은 득선을 향한 과정으로 주인공은 유기되거나 가난 질병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시험과 사역을 당하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스승을 섬긴 끝에 비결을 전수받아 불사의 단약을 합성하게 된다. 그리고 득선 이후의 활동담과 최후의 귀속이 뒤를 잇고 신선설화는 끝을 맺게 된다. 정재서, 앞의 책, 168-169면.

숙향은 요지연에서 천정 배우인 이선을 만나 혼인하게 된다. 이후 이선은 양왕의 청혼을 피하기 위해 형주자사를 자임하여 먼저 떠나고 숙향은 홀로 그 뒤를 따른다. 양왕의 청혼은 혼사장애적 고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숙향이 다시 홀로 여행하며 선업을 닦게 하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남편의 부임지로 향하는 숙향은 노전→양양강→표진강→장승상택→장사 땅→계양→양양→황성을 지난다. 선업 과정은 앞서 수련 여정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수련 과정에서는 단계마다 신인적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며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켰다면, 선업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는 은혜를 갚고, 고난을 주었던 이들은 용서한다.³²⁾ 선업의 과정은 신화적 설화 구조에서 ‘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 숙향은 이제 옛날의 나약한 어린 아이가 아니다. 그녀의 존재변화는 이선과 혼인에서 비롯된 지위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는 앞서 민중과 동물 그리고 신인적 존재에게 보호받고 시험 당하던 존재에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숙향이 내적 외적으로 성숙한 ‘전인(全人)’이 되었음을 의미한다.³³⁾ 능력의 발휘가 보은과 용서(해원)의 형태를 띠면서 다시 신적 존재들에게 신물(神物)을 얻는 것은 선업이 숙향에게 더 큰 능력(양생과 치유의 능력)을 획

31) 숙향의 득선 여행은 다음과 같은 대칭구조를 이룬다.

산→	마을→	명사계→	장승상택→	표진강→	노전→	이화정→	서왕모집
←양양	←계양	←장사땅	←장승상택	←표진강	←노전	←이화정	

32) 노전에서 화덕진군에게 제를 올리고 그 감응으로 화주 2개를 얻고, 표진강에서는 용녀에게 제를 올린 후에 금은보화와 오리알 만한 구슬을 얻는다. 장승상택에 가서는 해원과 보은의 잔치를 열고 장사땅에서는 잔나비와 시습, 황새에게 300석 밥을 지어 보답한다. 그리고 양양으로 가서 부모와 상봉하여 버림받았던 한을 풀다.

33) 득선을 하기 위해 ‘선을 쌓고 공을 세우며 사물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을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고 어진 마음이 곤충에게까지 미쳐야 한다.’ 『포박자·내편』 권6, 『微旨』, “欲求長生者, 必欲積善立功, 慈心於物, 恕己及人, 仁逮昆蟲.”

특하게 하는 특선과정임을 알게 한다.³⁴⁾

3. 환상의 세계, 소망적 현실 : 대안공간

<숙향전>의 서사구조가 특선 여행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격은 수련과 선업의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특선 여행에서 숙향이 지나고 머물렀던 공간은 현실이면서 현실이 아닌 세계이다. 이곳에는 생물과 무생물, 인간적 존재와 신적 존재, 종교적 존재와 우주적 존재가 공존한다.³⁵⁾ 그들은 어떠한 경계짓기도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와 시공의 차원도 무시한 채 공존한다. 즉 <숙향전>의 세계에는 ‘현실계(지상계)·천상계·지하계·신세계·용궁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³⁶⁾ 서사문학의 모든 계가 동일 공간 안에 공존하는 것이다.³⁷⁾ 특히 기존의 관념적인 천상계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별나라도 등장한다. 이는 기실 신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다.³⁸⁾ 주목할 것은 <숙향전>의 수많은 초월계들이 현실계와 이어지는 하나의 공

34) 숙향이 신물을 이용하여 아랫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이후 죽은 황태후를 살리는 것에서 숙향이 획득한 능력이 생명을 기르는 ‘양생(養生)과 치유’의 능력임을 알 수 있다.

35) 종교적 존재는 유훈도 3교와 관련한 존재들이며 우주적 존재는 별나라로 형상화된 세계의 존재들이다.

36) 조희용, 『한국서사문학의 공간개념』, 『고전문학연구』1, 1971.

37) 천상계와 지상계가 설정된 고소설의 경우 대개 천상계는 지상계와 분리된 초월세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숙향전>의 공간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38) <숙향전>의 별세계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국이다. 『산해경』은 고려조 기록에서부터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특히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주요 독서물로 읽혀졌다. 이 책은 문인들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전고로 활용될 만큼 보편성을 확보한 소통의 매개였고, 역사지리서로도 인지되었다. 최기숙,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의 ‘환상’인식과 문학적 향유』, 『문학교육학』30, 38~43쪽.

간 안에서 원근의 차이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숙향이 수련과정에서 후도보인을 만나는 명사계는 “산곡의 혼 궁궐”이 나³⁹⁾ “성황”으로⁴⁰⁾ 묘사되며, 용궁계의 용녀를 만난 것도 해중 수부(水府)인 용궁이 아니라 표진강 위이다. 산위나 물위로 묘사되는 지하계나 용궁계는 우리의 민간신앙과 결부되는 공간으로 신적 공간이자 현실의 공간이다. 숙향의 여행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으며 전환점이 되는 “서왕모 집”도⁴¹⁾ 완전한 천상계가 아니다. 그곳은 모든 신들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천상의 상제도 육룡이 끄는 황금수레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⁴²⁾ 지상 위의 천상이다. 상제는 서왕모의 집에서 신인들의 하례를 받는데, 이는 서왕모의 집이 상제의 지상 도움이기 때문이다.

서남쪽으로 400리를 가면 곤륜구라는 곳인데 바로 여기는 천제의 하계의 도움으로 신 육오가 맡고 있다. 이 신의 형상은 호랑이의 몸에 아홉 개의 꼬리, 사람의 얼굴에 호랑이 발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은 하늘의 아홉 구역의 경계와 천제의 정원의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양 같은데 네 개의 뿔이 있다. 이름을 토루라고 하며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벌 같은데 큰 것은 원앙새와도 같다. 이름을 흠원이라고 하며 벌침으로 새나 짐승을 쏘면 죽고 나무를 쏘면 시든다. 이곳에 이름을 순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천제의 온갖 기물과 의복을 맡고 있다. 이곳의 어떤 나무는 생김새가 아가위 같은데 꽃이 노랗고 열매가 붉으며 맛은 오얏 같으나 씨가 없다. 이름을 사당이라고 하며 물을 막을 수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곳에 이름을 빈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생김새는 해바라기 같고 맛은 파와 같으며 먹으면 근심을 멎게

39) <숙향전>, 15쪽.

40) <숙향전>, 83쪽.

41) <숙향전>, 61쪽.

42) <숙향전>, 61~62쪽.

된다. 황하가 여기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무달에 들어가고 적수가 여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범천수에 흘러든다. 양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추도수에 흘러들며, 흑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대우에 흘러든다. 이곳에는 괴상한 새, 짐승들이 많이 산다.⁴³⁾

서왕모가 책상에 기대어 있는데 머리꾸미개를 꺾고 있다. 그 남쪽에 세마리의 파랑새가 있어 서왕모를 위해 음식을 나른다. 곤륜허의 북쪽에 있다.⁴⁴⁾

서해의 남쪽, 유사의 언저리, 적수의 뒤편, 흑수의 앞쪽에 큰 산이 있는데 이름을 곤륜구라고 한다. 신-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몸인데 꼬리에 무늬가 있으며 모두 희다-이 있어 여기에 산다. 산 아래에는 약수연이 둘러싸여 있으며, 그 바깥에는 염화산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곧 타버린다. 어떤 사람이 머리꾸미개를 꺾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의 꼬리를 하고 동굴에 사는데 이름을 서왕모라고 한다. 이 산에는 온갖 것이 다 있다.⁴⁵⁾

천제의 하계 도읍으로 대표되는 초월계에는 서왕모와 같은 신인과 온갖 기이한 동식물이 공존한다. 그곳에는 천제의 기물과 의복을 담당하는 새, 먹으면 물에 빠지지 않거나 근심을 잊게 하는 열매, 그리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파랑새 등이 있다. 숙향이 천상에서 상제의 기물 중 하나인 월연단을 훔쳤다가 김전이 상제에게 꿀을 늦게 바쳤기에 적당하게 되었다는 것, 굶주린 숙향에게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꽃봉오리를 날라다 준 청조,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근심을 잊게 하는 동정굴과 대추와 같은 열매, 그리고 물위를 평지 걸듯 다니는 용녀나 선관 이적선 등의 모습은

43) 정재서 역, 『산해경』, 민음사, 1985, 92쪽. 『산해경』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한다.

44) 『산해경』, 271쪽.

45) 『산해경』, 312쪽.

이러한 초월계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로 볼 때 속향전의 공간은 여행의 출발지인 현실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환상세계임을 알 수 있다.

속향전의 공간, 즉 환상세계가 지나는 성격은 속향의 득선 여행에서 구체화된다. 속향의 득선 여행은 서왕모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을 이루는데, 이는 수련과 선업의 과정이라고 하였다.⁴⁶⁾ 그렇다면 속향이 수련을 하고 선업을 닦는 공간은 어떠한 세상인가. 부모에게 버림받아 산속에서 굶주려 울고 있는 속향을 보고 도적은 자식 또래의 아이가 호환(虎患)을 만날까 걱정하여 업고 역마일로 데려다 준다. 또한 잔나비는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황새는 추운 몸을 덮어준다. 뒤이어 청조, 후토부인, 흰사슴, 장승상 부부, 용녀, 화덕진군, 마고할미 등 속향의 여정은 수많은 조력자들과 만나는 과정이다. 속향에게 주어진 고난 반복의 운명은 기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력자들을 만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조력자들은 현실계에서는 하층에 속하는 도적이거나 피난민이며 그밖에는 자연물 그리고 신인들이다. 이들의 ‘조력’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리고 나약한 속향의 생명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들이 공존하는 세계는 현실의 부모가 버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이를 다시 살게 하는 세상이다. 이것은 권세를 지닌 이들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민중이 서로 돕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며 천상과 지상이 소통하는 세계인 것이다.

서왕모의 집으로 가는 길(세계)이 수많은 조력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서왕모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세계)은 “왕연 오늘날 이

46) 속향의 여행을 배우자 탐색을 위한 여행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조용호, 『<속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267~271쪽.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여행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은 작품이 배우자 탐색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향의 여행은 일종의 존재변화를 위한 수련과정이고 속향과 이선의 만남은 속향의 존재변화를 상징한다.

물의 숙향즈를 만났더니 금연 오날날 또 숙부인을 만났도다”⁴⁷⁾라는 표진강 선녀의 말처럼 이미 정체성이 달라진 숙향이 지난 은혜를 갚고 한을 풀며 용서하는 공간이다. 서왕모 집으로 갈 때의 숙향은 자신의 처지를 끝없이 원망하며 세상에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였다면 서왕모의 집에서 돌아올 때의 숙향은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서왕모의 요지는 숙향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공간인 것이다. 숙향은 요지에서 회복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상들을 하나하나 찾아 보답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윤리적 보은 개념에⁴⁸⁾ 머물지 않는 득선(천상선)을 위한 선업이다.

선업의 공간은 수련의 공간과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선업이 수련 과정에서 거쳤던 곳을 거슬러 가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련의 공간은 민중이 서로 돕고 자연과 인간이 이해하며 천상과 지상이 소통하는 조화로운 세계였다. 선업의 공간은 수련의 공간 위에 보은하고 감응하며 용서하고 해원하는 세계의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사흘 동안의 큰 잔치와 백미 삼백 석으로 밥을 지어 보답하는 장면은 이 세계가 풍요로운 지상낙원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숙향전>의 세계는 조화와 이해를 꿈꾸고 용서와 화해를 지향하는 풍요로운 세계로, ‘지상 낙원’이라는 신화적 이미지와 연결된다.⁴⁹⁾

그렇다면 왜 <숙향전>의 작가는 현실계와 공존하는 환상 세계를 만들

47) <숙향전>, 154~155쪽.

48)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52쪽.

49) <숙향전>의 환상세계는 신화세계의 선경과 낙원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신선설화 가운데 선경설화로 분류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신선세계이다. 선경설화의 주인공은 대개가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선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선인은 물론 선약과 기묘한 동식물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남자 주인공은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 사랑을 속삭이고 도술을 획득하거나 선물을 받기도 한다. 정재서, 앞의 책, 150면.

있을까. 어찌하여 초월계를 현실과 동떨어진 이원적 세계로 만들지 않고 현실계와 이어진 일원적 세계 속에 포섭한 것일까. 이는 <숙향전>의 환상세계가 ‘현실에 존재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적 세계로서의 환상 세계는 현실의 결핍을 반영한다. 현실의 부조리와 폭력이 해소된 세계가 저 먼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계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는 <숙향전>의 환상 세계가 현실을 대체하는 대안 공간임을 의미한다. 대안 공간은 현실 공간 안에 신화적 공간을 포섭하여 하나의 세계로 공존시키고자 하는 인식이 만들어낸다.⁵⁰⁾ 그렇기에 대안 공간은 현실과 초현실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곳은 고대 신화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와 초현실적 존재가 공존하며 공생하는 곳이다. 그곳은 현실의 결핍 상태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한다. 숙향이 자신의 집을 떠나 여행을 하며 거쳐 간 공간은 인간과 동물이 소통하고 선인과 속인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소통의 코드가 통일된 공간이기에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한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이처럼 <숙향전>의 작가는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신화적 상상력을 빌려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계는 단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 지향해야 할 전망을 제시하는 현실 대안적 공간이다.⁵¹⁾

50) 현실계에 상상계를 포섭하여 하나의 공간에 공존시키려는 욕망은 <숙향전>과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원형 천하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1)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소망하는 바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태원지>의 작가가 화이관의 전도를 말하고자 하여 <산해경>의 상상력에 의뢰하여 새로운 공간 ‘태원’을 만들어 낸 것과 같다. 소망하는 바는 현실의 결핍이고 새로이 창조된 공간은 현실에 대한 대안공간으로 결핍을 치유할 방법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4. <숙향전>의 지향 : 교감과 치유

<숙향전>의 환상세계는 신화적 상상력을 빌려 만들어낸 지상의 낙원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대안 공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에 그 세계에는 당대인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작품이 대안공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한 전망이란 무엇일까. <숙향전>은 다른 고소설에 비해 선악 갈등구조가 심각하지 않다. 숙향을 모함하여 장승상 댁에서 쫓겨나게 한 사향을 제외하면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향의 경우도 그 악행이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승상 댁에 머물던 숙향이 다시 여행에 길에 오르도록 하는 장치로만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숙향전>에서 갈등이나 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가 숙향(혹은 이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부모의 버림, 사향의 모함, 양왕의 청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금 세밀히 들여다보면 <숙향전>에도 가치에 대한 호오(好惡)가 존재한다.

중희의 부인니 보고 왈 공후 부가의셔 구흔흐미 구름 갖거늘 굿터여 김전으게 허락하시니 이제 납폐흔 것실 보미 그 간난흐물 가히 알지라 장희 왈 혼인논지난 이적의 도라 제 비록 간난흐나 우리 유여흐니 무슴 지물을 탐흐 리요.(4쪽)

천승이 웃고 왈 네 승승덕 모든 일을 맞타 온갖 것실 도적질흐다가 숨월 습일의 승승이 부인을 청혀여 영춘당의셔 잔치할 제 네 봉치와 중도를 도적혀여 숙향의 함의 녀고 숙향이 도적혀엿다 하고 거짓 승승의 말슴과 부인 말슴을 위조혀여 왕복하고 부인니 승상게 나온 스이에 네 숙향을 구박혀여 등미러 너치고 드러와 허무흔 말노 속여 엇쥬고 부르러 가난 제 하고 마을집

의 숨었다가 빗비 드러와 무거흔 말노 온가지로 지어 아니흐엇난다 너 승승과 부인은 만가지로 속여도 흐날은 속이지 못흐리라 흐고(48~49쪽)

승승이 크게 깃저 중스 썬의 가 도중을 츠즈 그 화승을 구흐니 도중 왈 어더서 그림갑실 만나 류미 판지 오리라 흐거날 승승이 굿티어 청흐다가 못흐여 그 그림 판 곳디 가 물너달나 흐시며 빅금 일빅양을 너여 류니 그제야 그 화승을 너여 류거날(53쪽)…도중 왈 나는 본디 중스라 니를 취흐미니 본디 빅금을 류고 썬스오니 갑실 더 류오면 팔고 가리니다(77쪽)

장희는 구슬 2개를 예물로 보낸 김전을 못마땅해 하는 부인을 타이르고, 장승상 댁 살림을 맡는 동안 도적질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던 사향은 천벌을 받는다. 물욕과 거기에 더해진 부정함에 대한 경계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의식에 따른 것이기에 특이하다 여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편적 경계 대상인 물욕을 작품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인 조장은 악인이 아니다. 그가 물건을 사고팔며 흥정하는 모습은 상업이 발달한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간절히 그림을 원하는 승상에게 다른 곳에 이미 팔았다고 하여 그림 값을 올리거나 본래 장사치의 속성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공표하며 값을 더 많이 주면 팔겠다는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마고 할미가 술파는 상인인 줄 안 숙향이 할미에게 “원컨디 서로 속이지 말고 빅연을 혼갈갓치 지너다가 죽어 흐 곳디 못치물 바리오며(60쪽)”라고 한 간절한 부탁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의 속성을 남을 속이는 것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작품이 부정함과 쉽게 결탁할 수 있는 세속적 물욕과 점차 상업화 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그날 밤 꿈의 혼 부처 와 이르되 승서 형벌이 업혀 무죄한 백성을 만나
죽여시미 무즈식하게 하여더니 부인의 정성이 지극히미 귀즈를 꺾지하니 줄
 지루라. 호고 간디 업져날 (68쪽)...이난 반다시 이미혼 스텀을 중호의 죽이
려 하니 호날이 도우시난가(110쪽)

승승과 부인의 꿈의 혼 선녀 구름 속으로 내려와 계화 혼 가지를 주며
 왈 네 전생의 죄 중하여 무즈식하게 하여더니 남으게 이미이 잡퍼 설음으로
지니미 이 싯틀 쥬나니 줄 간슈하라. (22쪽)...이미혼 숙향을 도적하여 갔다
고 소동하여 저를 니치려 호오니 그런 불승한 일이 업스오며(34쪽)..오직
스향이란 연은 부인을 이미이 익명 입된 죄로 향아 옥테게 아뢰여 천벌을
치게 하여스오니 (42쪽)

이선의 부친 이상서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부귀가 조정에 으뜸이
 지만 늦도록 자식을 두지 못한다. 평소 형벌을 엄하게 하여 무죄한 백성
 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문의 생명을 끊는 무후인
 것은 생명 경시와 지나친 폭력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러한 경고는 후
 에 애매한 숙향을 죽이려하자 하늘이 도와 나장들의 곤장이 움직이지 않
 도록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폭력과 더불어 억울함에 대한 경계도 있다.
 장승상 부부는 전생에 죄를 지어 무후할 운명이었으나 지금 세상에서 애
 매한 누명을 입고 서럽게 살고 있기에 그 죄를 용서받고 양녀 숙향을 얻
 게 된다. ‘애매함’이란 억울함이다. 억울함은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가
 로막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애매한 처지를 경험했던 장승상과 그 부인이
 사향의 인간질에 눈과 귀가 멀어 숙향의 애매한 누명을 바로 보지 못한다.
 결국 숙향이 떠난 후 그들은 끊임없이 숙향의 ‘애매함’을 슬퍼하며 속죄하
 는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 마고할미가 숙향과 이선에게 번갈아 연분의 상
 대가 눈멀고 참혹하게 병든 사람이라고 하며 포기할 것을 종용해도 “연분

니 지중하면 병인이라도 엇지 관계허리요(83쪽)”, “진실로 티을션군니면 비록 두 눈 멀고 촉촉한 병인인들 관계허오릿가(94쪽)”라며 보지 않고도 믿고 약속(연분)을 지키려는 태도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작품이 진정한 소통이 가로막힐 때 생기는 불신을 경계하고 굳건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달부터 티고 잇스니 김전니 크게 짓거 아달 낫키를 축슈허더라.(6쪽)…김전니 쏘흔 진력허여 닷지 못흐니 정히 망극허여 중시다려 왈 도적이 급히 쓰르고 니 힘이 진흐니 우리 두리 다 스라나면 숙향갓튼 즈식을 다시 보려니와 우리 다 죽으면 신치를 뉘 거두며 부모의 체스를 뉘 밧드리오. 아모리 인정의 망극하고 제 정성이 잔잉흐나 숙향을 니곳디 푸고 잠간 피흐엿다가 적병이 지년간 후 다시 와 다려가스이다.(9쪽)…숙향을 저리 스랑흐면 무슴 일노 반야산 돌 틈의 바리고 가며 낙양 옥중의 갓쳐실 제 엇지 찻지 아니흐고 늘근 날다려 과로이 여러 말 못난나(172쪽)

김전은 난리 중에 산속으로 피난하다 도적이 추적이 급해지자 부인에게 숙향을 버리고 갈 것을 제안한다. 부부 두 사람만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숙향 같은 자식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부인이 태몽을 얻었을 때 아들 낳기를 기원했던 바람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김전은 훗날에도 낙양 옥에서 만난 숙향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중에야 딸을 찾겠다고 나서자 반야용왕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정성을 시험한다. 즉 말로만 하는 형식적 부정(父情), 딸에 대한 무정한 부정에 대한 질책인 것이다. 용왕은 그러한 질책과 정성 시험 후에 숙향의 거취를 알려주며,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딸 용녀를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한다.⁵²⁾ 김전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김전이 서둘러 숙향을 버리고 간 뒤, 뒤쫓던 도적이 오히려 “나도 너와 갓탄 즈식이 있더니 이러헿가 불

승하고 잔잉하다(12쪽)”라고 하며 숙향을 구해 주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숙향전>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은 세속적 물욕, 지나친 폭력과 생명 경시, 소통의 단절로 인한 불신과 가족 관계에서의 부정함 등이다. 이들은 모두가 관계의 단절과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며 서로에게 죽음과 억울함 등의 상처를 남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단절과 분리의 패러다임이⁵³⁾ 지배하는 곳이 주로 현실계 즉 인간들의 실제적 삶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이 문제적 시공이며 결핍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숙향전>은 이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상상력으로 그 위에 새로운 현실을 덧입힘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한다. 새로운 현실, 즉 대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관계맺음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공간을 통해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건강한 세상이다. 삶의 건강함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 관계 즉 상호 평등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소통과 이해는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통의 대상들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확인한다. 부귀한 부친은 어린 딸자식을 버렸지만 무자비할 것 같은 도적은 진정한 측은지심으로 살려주고, 피난 중이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준다.⁵⁴⁾ 진정한 소통을 바라는 소망이 상상의 힘을 빌리면 이름 모를 풀과 작은 짐승까지도 그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

52) “나도 죽식을 위하여 그대 은혜를 갑푸려 호고”, <숙향전>, 173쪽.

53) 에드가 모랭, 고재정·심재상 역, 『20세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6, 464쪽.

54) “마을 가운데 드러가며 실피 부모를 부라니 보난 스람이 불승이 네겨 왈 일정 란중의 부모를 일은 아히로다. 음식을 쥬어 먹이며 그 비승한 얼굴을 보고 지루고져 하나 저 의도 피란하여 동서 분쥬히미 다러가지 못히더라” <숙향전>, 13~14쪽.

으며, 실제적 삶의 경계를 넘어 신적 존재들도 인간의 삶에 끌어들이 수 있다. 소통을 소망하는 대안 공간에서는 창조가 말을 하고 삼살개가 글을 써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까치는 고난을 미리 알려준다.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알아 헤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신기한 음식물을 가져다주어 배고픔을 잊게 한다. 숙향이 장승상의 양딸이 되자 만물이 시드는 가을날에도 새로이 꽃이 피고⁵⁵⁾ 숙향이 모함을 받고 쫓겨나 물에 빠져 죽으려 하자 풀나무도 슬퍼하고 새들도 슬피 운다.⁵⁶⁾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인물(人物)이 소통하는 세계의 표지이다. 대안공간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고통 없는 삶을 만드는 주체이며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

<숙향전>의 세계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윤리적 보은 행위로만 평가받은⁵⁷⁾ 숙향의 귀로에는 보은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숙향이 제사를 올려 화덕진군과 용녀에게 보은하자 그들은 화주 2개와 금은보화, 그리고 개안주를 답례로 준다. 이는 숙향이 제문에서 “슈룩이 다르오나 미성을 감응호쇼서(156)”라고 말하였듯 신과 인간의 교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감을 통해 신인은 숙향에게 치유력을 부여한다. 화주와 개안주는 숙향으로 하여금 일행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황태후를 죽음에서 소생하게 할 수 있도록

55) “예 업던 구름이 동산의 어리엿고 괴이흔 향니 진동호거날 승승이 혼즈 말노 이라되 잇써 휴절이라 오식 구름 일 썸 아니요 쏘흔 나무 입과 쏫 썸 썸 아니라. 어더셔 괴이흔 향니 나난고 호며 죽중을 집고 동산의 올라 비회호더니 모란화 나무의 입피 시로 뛰여 나고 쏫치 만발호디 혼 게집 아히 안즈 죠울거날” <숙향전>, 23쪽.

56) “익명을 입고 이 물의 썸져 죽스오니 천지 일월 성신은 어엿비 네괴소셔 실피 통곡호니 슈운니 춤담호고 비풍이 습습호며 초목이 실허호난듯 호며 흥인도 눈물 아니 흘리리 업더라. 희난 썸러져 서산의 넘어가고 골시난 물가의 실피 우니” <숙향전>, 37~38쪽.

57)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38, 1997, 5쪽.

하기 때문이다. 또 숙향의 귀로 중 장승상 댁에서 연 잔치 또한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용서와 해원의 잔치이다. 숙향이 장승상 댁에 들러 지난날의 억울함을 풀고 오해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과 장승상 부부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⁵⁸⁾ 이처럼 숙향이 수련과 선업을 통해 획득한 것은 현실의 고통 즉 배고픔과 마음의 병 그리고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숙향은 단지 지위가 높은 귀부인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고대의 여신과 같은 모습이다.⁵⁹⁾ 이는 <숙향전>이 숙향의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현실의 치유임을 의미한다.

5. 남은 이야기 : 축제와 승선(昇仙)

<숙향전>의 상상력은 궁극적으로 치유를 꿈꾼다. 치유의 대상은 배고픔, 죽음, 단절 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모든 결핍이다. 이러한 소망의 실현을 위해 작가는 숙향으로 하여금 수련과 선업의 과정을 겪게 하고 더불어 현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사실 득선 여행을 통해 얻은 숙향의 신인적 치유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죽음의 치유 즉 황태후를 위한 구약여행이라 할 것이다. 죽음의 치유는 지상선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이 경지에 도달하면 승선하여 천상선이 될

58) 장승상 댁에서 나온 숙향은 그 쫓겨남의 원인이 애매한 누명임을 누차 말해왔으며, 장승상 부부 또한 숙향을 오해하여 죽음으로 몰아 부친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59)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고픔의 호소는 곧 결핍을 의미하며, 배불리 먹임은 결핍에 대한 치유를 의미한다. 서왕모로 대표되는 고대의 여신은 대개가 생명을 불어넣거나 죽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다.

수 있기 때문이다. <숙향전>이 준비한 여행도 황태후를 위한 구약 여행에서 완성되는 만큼 이 부분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구약 여행은 숙향이 아닌 이선이 담당한다.

이선의 여행은 크게 꿈 속 여행과 꿈 밖 여행으로 구분된다. 장자의 『호접몽』이나 황제의 『화서몽華胥夢』 및 이를 계승한 원대 대표적 신선도화극(神仙道化劇) 『개단천교황량몽開壇闡教黃梁夢』⁶⁰⁾ 등, 꿈은 깨달음의 과정으로서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꿈을 통한 깨달음은 신선들의 정신적 수련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이선은 꿈속 요지연에서 자신의 선연(仙緣)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숙향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숙향과 마찬가지로 상승적 존재 변화를 경험한다. 이선은 마고할미와 표진강 용왕 그리고 표덕진군의 시험을 인내심을 지니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이는 이선의 여행도 득선의 수련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선이 정신적 육체적 수련과정을 모두 견뎌내며 숙향과 동일한 경로의 득선 여행을 통해 숙향이 획득한 치유력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 황제의 명을 받아 선계로 구약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⁶¹⁾

일반적으로 구약 서사는 희생과 결부된다. 바리공주 무가에서도 약을 얻는 과정에 바리공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선의 구약 서사는 신선들과의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 바리공주는 구약 과정에서 자신의

60) 『개단천교황량몽』은 여동빈이 꿈을 통해 주색재기(酒色財氣)에 대한 집착을 단절하고 득선의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61) 생명을 살리기 위한 채약이나 구약은 신선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신선가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방법의 대표적인 양식이 치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선설화에서 다수의 선인들은 채약이나 매약(賣藥)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며 치료행위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다. 『열선전』에는 최문자(崔文子)라는 선인이 환약을 만들어 팔며 돌림병이 나자 집집마다 다니며 약을 복용하게 하여 많은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산해경』에서 서술되어 있는 불사약도 생명을 살리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으로 길 값 등을 치르지만 이선은 모든 수고를 용자가 대신한다. 선관들이 술이나 먹으러 가자며 괴롭히지만 이러한 짓궂음은 실상 장난이며 궁극적으로는 먼 길을 돌지 않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선은 이적선, 두목지 등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목적지인 봉래산으로 향한다. 그 사이 양왕 등이 포함하지만 황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이선이 병들면 누렇게 될 거라던 동백나무는 점점 더 씩씩하고 무성해진다.⁶²⁾ 이것은 그의 여행이 순조로울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구약 여행은 성공을 거두어 황태후가 소생할 것을 예고한다. 즉 이선의 여행은 생명의 구제를 담보한 축제인 것이다.

신들의 축제는 이선과 숙향의 승선을 암시한다. 이선은 봉래 선경에서 여러 신선들과 어울려 놀며 황룡을 타고 천계를 여행한다. 이선은 이미 숙향의 득선 여정을 반복하여 선인의 자질을 획득했다. 거기에 황태후를 위한 구약이라는 적극적인 선행이 더해지니 그 다음 단계는 승선하는 것이다. 이선의 천계여행이 비상(飛翔)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승선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⁶³⁾ 이로 본다면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지 않는 치유의 방식, 즐겁고 건강한 세계를 소망하는 <숙향전>은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서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수 탐색의 의미를 지닌⁶⁴⁾ 구약 여행을 숙향이 아닌 이선이 담당한 것에 대한 혐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소설이 현실반영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신화적 사유를 기반으로 창작 전

62) <숙향전>, 223쪽.

63) 기존 연구에서는 천상선과 이선의 만남에 대하여 신적존재들이 단일한 의지와 명령 체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다양한 욕망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 세계 작동원리에 주목하였다.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형상과 작동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 2007, 191~217면. 본고에서는 동일 장면을 승선을 준비하는 신선들의 축제로 보았다.

64)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승된 서사무가의 경우 신인적 능력의 중심은 마지막까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서사무가가 다른 장르에 비해 고대 신화의 사유를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향전>과 같은 소설의 경우 창작 당시의 사회적 풍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불합리와 가부장적 폭력성을 부정적 시선으로 보면서도 궁극의 해결에서는 남성을 주제로 삼고 여성은 집안에서 기다리며 보좌하는 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에서 좀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숙향전』, 한국고대소설총서 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통문관, 1958, 1~227면.
- 『산해경』, 정재서 역, 민음사, 1985. 5~388면.
- 『목천자전·신이경』, 송정화·김지선 역, 살림, 1997, 15~208면.
- 강상순, 「고소설에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54면.
-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47, 2005, 55~80면.
-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식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5~30면.
-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5~30면.
- 김용석, 『서사철학』, 휴머니스트, 2009, 23~683면.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9~271면.
-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38, 1997, 1~27면.
- 오상학, 「조선후기 원형 천하도의 특성과 세계관」, 『지리학연구』35, 2001, 231~247면.
- 이 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1~419면.

-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991, 64~103면.
-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5~374면.
- 정환국,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화사연구』37,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 75~102면.
- 조셉 캠펠,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5~503면.
-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242~278면.
- 조희웅, 「17세기 국문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숙향전>을 중심으로」, 『어문학 논총』16, 국민대, 1997, 19~31면.
-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형상과 작동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 2007, 191~217면.
-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3~409면.
- 최기숙,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의 ‘환상’인식과 문학적 향유」, 『문학교육학』30, 29~65면.
-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010, 223~253면.
- 홍현성, 「<태원지> 시공간 구성의 성격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2010, 296~319면.

ABSTRACT

Imagination, dream of communication and healing, <Sookhyangjeon>

Kim, Soo-Youn

<Sookhyangjeon> is a fantasy novel which includes basic mythicalness. Sookhyang matured a lot spiritually and physically as she was rejected by her parents and lived through various hardships. The arduous journey is a process of acquiring goodness: acquisition of god-men's ability helped by a transcendental being and by a natural being. The process of acquiring goodness is a travel structure to Yosiyeon and turning back to the first. The road to Yosiyeon is the course of training for Sookhyang as a weak human to accomplish the doctrines of gods by the help of an assistant, after that, Sookhyang was able to attend the meeting of gods, Yosiyeon. After she truly knew that she was a fairy, her way back to the world is a process of achieving good deed by Sookhyang herself having character like immortals living on earth. Even if good deed adopts the way of gratitude, but it has more meaning than that. Sookhyang acquires life-saving healing power through good deed.

The place where she has got goodness is from worldly to transcendent. Beings who she meet in the gaining goodness trip are a blue bird and deer as natural beings, and god-men as supernatural beings. It is not easy to interact or commune with natural beings in reality. It is the same about supernatural beings. So, the space where she meet with them is a kind of a fantasy world. A fantasy world reflects the lack of reality. The world created with a hope for protecting the weak and communication with nature has assumed an alternative space for a harsh and abusive life. The alternative space, by definition, is a dream world as a reward or an alternative for real life. At the same time, the space is the world that can communicate with supernatural world as it exists in real boundaries not in celestially

Sookhyang's character like god polished up her good deed and has been boosted after she became immortals living on earth through her gaining goodness trip.

Goddess represented by Seowangmo usually has the power of vitalizing or healing. Sookhyang also has got this power by training for goodness and her good deed. Meanwhile, in the <Sookhyangjeon>, leading Yisun into fairy Margo's temptation, Sookhyang's travel routes recur because her healing power should be shared with her spouse, Yisun. It offered an opportunity for Yisun to cure the empress dowager when she hovered between life and death. Yisun's travel may look painful at the hands of gods, but actually it is a festival, gods help him and they enjoy together with him. The festival of gods and Yisun in heaven means that he got qualification as a god. So, after Yisun and Sookhyang passed the process of training and a good deed and cured the empress dowager, they can get on. As the healing power of myths has been passed down to epic songs of shamanism, it keeps its mythical prototype, so, the power of healing death show up by the woman herself. But as for a novel, it is can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its matrix. It is understandable that Sookhyang has to do nothing but satisfied to assist Yisun, not to come to the center to save the empress dowager, that is the reflection of realities of the time when this novel was written.

Key Words

<Sookhyangjeon>, mythicalness , healing imagination , alternative space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